

불기 2548년 5월은 부처님 오신 달

“우리도 부처님 같이” Buddha's Birthday



조계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가 5월 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2월 15일부터 매주 일요일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와 현대불교를 통해 조계사는 물론 전국을 감로법문으로 수놓았던 선사들의 법석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초청대법회’ 뭘 남겼나?

“수행의 맛 알았다” 위기론 ‘기우’ 입증

활구법문 신선한 감동... “이런 법회 많아야”

참가자들 한목소리

회향법회가 열린 5월 9일 본지는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 선원장 초청법회에 대한 소감과 평소 수행과정의 어려움, 종단과 스님들에게 바라는 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박법륜행, 58)

불자들은 종단과 스님들에게 보다 많은 선지식들을 추천하고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참선의 대중화, 참선을 통한 불교교에 힘써 달라.”(홍천희, 58) “불교란 것이 기복이 아니라 철학이며, 이 좋은 간화선이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길.”(박법륜행, 58) “1년에 한 두 차례 대형 사찰에서 정례화하고, 실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시민선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있었으면 한다.”(김성우, 38) “평상시에도 인터넷 동영상과 불교TV, 테이프를 통해 법문을 보여달라.”(강명희, 37)

한편 네티즌도 붓다뉴스에 올린 동영상 법문을 통해 선원장 스님들의 법문을 통해 진리를 현실 속에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깨달아야 함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동진(55) 씨는 “수행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스님들의 법문은 고정관념을 탈피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다. 양한웅(46) 씨는 “간화선에 대해 평소 머리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전은희(40) 씨는 “체계적인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소개했다.

불자들은 평소 수행과정에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헤매게 될 때 수시로 지도 점검해 주는 분이 없다.”(이보성, 55) “내 수행을 비취볼 자상한 선지식 친견이 어렵다.”(정희중, 65) “사회 생활과 수행을 조화하는 것이 어렵다.”(손진국, 40) “생활하다 보면 많은 경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수행의 길인지 궁금하다.”(박영배, 57) “생활 속에서는 시간을 내서 참선하기 힘들다. 일주일에 한번 조계사 참선 수행 시간을 통해 좋은 강의를 들으며 참선을 배우고 있다.”(김해린, 35) “번뇌, 망상으로 인해 참선하다가 어느새 화두가 사라진다.”

“선원장 큰스님들의 법문이 모두 다 좋았지만 도현 스님의 법문을 못 들었더라면 크게 아쉬울 뻔 했습니다. 오늘도 덕분에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열고 있습니다.”(ID ‘칭법자’) “무여 스님의 법문을 듣고 죽을 때까지 닦겠습니다.”(ID ‘나무’) “들장을 만드려는 어려움으로 이리도 좋은 (영진 스님의) 법문에 눈을 뜬다.”(ID ‘콩나물’) “대원 스님의 법문을 듣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내 마음(見色即見心)이라는 고인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날입니다.”(ID ‘김성우’) “해국 스님을 동영상으로 친견했습니다. 한살림 챙겼습니다.”(ID ‘도둑놈’) “현산 스님의 ‘비우고 쉬라’는 말씀이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이제는 수행이라는 생각마저 놓고 무심히 방학하는 공부할 지어하겠습니다.”(ID ‘서울시민’)

이처럼 불자들은 한결같이 선원장 법회의 열기를 모아 시민선원 지원, 정기적인 참선 법회 개최 등 종단 차원의 선풍진야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희망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법회 동참기 이남숙 신수회 회장

“어머, 불교가 저런거였어? 나를 보라는 거네”



그동안 여러 사찰에서 백교법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큰스님들의 대종법문이 계시지만 저에게는 공부할 인연이 주어지지 않아서인지 여러차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가 저에게는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계종은 간화선의 맥을 잇고 있기에 목조선을 수행하는 저로서는 많은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스님들을 찾아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스님도 없었던 터라 훌륭한 선원장 스님들을 가까이에서 법교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넘치는 기쁨이었습니다. 법회에 동참하면서 스스로 대견함을 느끼게 되었고 주위의 선지식들께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돌고 돌아 비로서 제 자신이 정법의 자리에 서 있음을 보았고, 스님들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우 스님(간화사 태백선원장)께서는 ‘본래부처’임을 철저히 믿고 늘 성성직직한 가운데 한 생각 일어난 그 자리를 돌이켜 비춰보는 ‘회광반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행법을 뒤따라오 우리가 본래부처임을 꼭 믿고 해나가면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대원 스님께서는 부처님 말씀을 요약 하자면 ‘안심입명처’라고 하시면서, 우리 중생이 갖고 있는 욕심과 욕망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스님께서는 정법을 바로 알려면 우선 부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부처님은 어떤 자세로 일상생활을 하셨으며 어떤 인격을 갖추셨는지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선원장 법회에 같이 동참한 보살님들로부터 다음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어머, 불교가 저런 거였어? 나를 보라는 거네! 그동안 내가 불교를 잘못 믿었나!”

법회 동참자들은 모든 고통의 원인이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실행활동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자고 한목소리였습니다. 밖을 향하여,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기도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반성하고 참된 수행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도심속에도 많은 수행처가 생겼지만 개개인이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종단 차원에서 일년에 한두 차례 대중법회를 마련해 주시든지, 불교TV를 통하여 법문이 늘상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불교계 신문물 통하여 한글 세대의 대중들이 알기 쉬운 법문으로 일러 주셨으면 합니다. 참선도 교학을 알고 하면 더욱 쉽게 교학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큰스님들의 말과 동작 하나하나를 깨달음의 문을 열어주는 법문(法門)이 되었다. 사진은 도현스님(쌍계사 금당선원 선덕)이 5월2일 조계사에서 설법하는 모습.

인터뷰 이연숙 조계사 신도회장

“수행 나침반 제시 감사 열풍 잇기 매진할 터”



“세 달 동안 조계사는 간화선 수행 열풍의 진원지였습니다. 이 열기는 지금도 식지 않고 제방 사찰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재가불자의 총림을 지부하는 조계사 신도로서 한량 없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5월 9일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의 회향을 맞은 이연숙(65·대가심) 조계사 신도회장은 조계종 직할교구본사인 조계사로부터 ‘간화선 불’이 일어나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선원장 스님들의 활구(活句) 법문은 조계사의 3만여 신도는 물론 모든 불자들에게 감로수였습니다. 또 자상한 가르침을 통해 느낀했던 우리 불자들의 발심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매주 일요일 열린 선원장 법회를 거의 빠짐없이 참석한 이 회장. 선원장 법회가 재가불자들에게 각각의 수행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었다며 강조했다.

“선원장 법회는 재가자 수행의 나침반이 되었으며, 자발적인 발심 수행을 이끄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큰스님들이 공부하는 불자, 수행하는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수행에 관한 모든 것들을 조목조목 짚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회장은 이러한 선원장 초청 법회의 열기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2년 개원한 조계사 수행원을 간화선 열풍을 담아내는 재가불자 수행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게 이 회장의 복안이다. 김철우 기자

온가족이 함께 모여 오손도손 연꽃등만들기 세트 1세트 연등3개 분량

법당용 연등과 같은 연꽃등

온가족이 오손도손 정성으로 만들어 거실과 대문에다 밝히고, 이웃에게 선물로 공양하도록 소포장한 연등제조세트(3개 분량)



X-마스 트리를 직접 만들며 가정을 밝히는 모습을 부러워하지만 말고 청정함의 상징인 연꽃등을 직접 만들며 연꽃의 의미와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생각하며 4·8절을 다함께 봉축하는 문화를 만들어봅시다.

불교서원 주문전화 0303-4823-3056 ※전국 시내전화요금에 적용됩니다. E-메일 : buddha0@hanmir.com

행자모집

- 1. 자격 : 16세이상 41세이하의 독신 남.녀 / 고졸이상
2.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또는 숫자 8228 참조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 474-8228

불기 2548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대한불교조계선종 중무소 팔만 보현사

주 지 지 응

사부대중일동

※ 조계선종과 뜻을 함께 할 스님들을 모십니다.

■ 경남 창원시 소담동 130-8번지 TEL 055-256-7017